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5. 8. 6.(수)

## ‘데스크’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- 8월 6일(수) 여러 매체에서 "한·미 정부가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‘데스크’를 따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", "한국이 과일 등 농산물 검역 절차를 완화할 전망", "검역 세부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검역에 속도를 낼 것"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

### < 정부입장 >

- 기사에서 언급된 ‘데스크’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,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.
- ‘농산물 검역절차 완화’, ‘검역 세부기준 유연하게 조정’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<br>통상정책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윤정주 (044-215-7676)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지혜 (wp2428@korea.kr)   |
| 담당 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<br>미주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| 안홍상 (044-203-5650)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조은형 (goodbro@korea.kr)  |
| 담당 부서 |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<br>검역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희중 (044-201-2071)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문송민 (songmean@korea.kr) |